

# 제1회 빵·과자 競演大會

## 업계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돼야

우리나라 제과업 발전에 또하나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제1회 빵·과자 경연대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열리게 돼 전국의 1만5천여 제과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제1회 하인즈 빵·과자 경연대회”라 이름하여 개최하게 되는 이 대회는 본 협회에서 주최가 되는 한편 유사업계로서 명성이 있는 (주)서울하인즈 주관하에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간 개최된다. 기술인들의 자질을 드높이는 동시에 기술향상을 제고하며 나아가서는 기술인 모두의 사기를 드높이는 새로운 장을 이룩함으로써 前向的인 제빵·제과업을 발전시키자는 목적에서 올부터 2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열리게 돼 업계에 부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제1회 하인즈 빵·과자 경연대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협회가 대회를 주최하되 이미 公企業을 표방한 주식회사 서울하인즈가 주관하는 바, 同社는 이대회에 소요되는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흔쾌히 회사하기로 계획을 굳힘으로써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는 기술인이면 누구나 참여한 가운데 실연을 통해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써 기술향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하는 기술인들은 나이를 기준으로하여 34세 이하층과 35세 이상으로 구분, 실기 경연을 벌이게 되며 실기 경연품목은 모두 6개 분야로서 ①특수빵부문 ②조리빵부문 ③건과자부문 ④데커레이션부문 ⑤양생과자부문 ⑥공예과자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입상자에 대한 상금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금액인 5백만원을 大賞자에게 안겨주는 한편, 金賞(10명)수상자에 각기 2백만원, 銀賞(10명) 역시 각기 1백만원을 수여하는 외에 銅賞등으로 나누어 시상하는데 부상인 상금만도 무려 4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대회는 이밖에도 대회 종료와 때를 같이하여 63빌딩 컨벤션홀에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 전국과업인의 밤을 마련, 축제 분위기를 한껏 조성할 계획이다.

어떻든 “제1회 하인즈 빵·과자 경연대회”는 업계발전을 위한 효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여론과 더불어 성과 또한 클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무역장벽이 허물어 진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실로 바람직하며 환영할 만한 대회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우투파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머지 않아 해외의 다국적 기업은 물론 유명브랜드가 이땅에 발 붙일 것은 불 보듯 뻔한 터에 우리 업계가 살아남고 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른바 선진기술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견지에서 “제1회 하인즈 빵·과자경연대회”가 의미하는 비는 매우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 대회가 본협회에서 1983년부터 개최해온 바 있는 “서울 국제 빵·과자전”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대회로 발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인 모두의 대거 참여만이 同大會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듭 전국의 기술인 모두가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업계의 활로가 보다 환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